**유진 정착 정보**

Version 1.0: 2017. 1. 20. 신일훈

1. 아파트 렌트

아파트 관련해서는, 제가 지내면서 느낀 점과 주위 분들, 또 교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개인적으로는 다음의 아파트를 추천합니다.

일단 지역은 goodpasture loop 주변도 좋은 것 같습니다. 스쿨버스 편하게 탈 수 있고 또 안전합니다. 주위가 대부분 저택 아니면 아파트여서 노숙자가 없고 위험하지 않습니다.

주요 아파트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Heron club: 한국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 월세가 낮은 편이며 타운하우스 스타일의 집에서 이웃 크게 신경 안 쓰고 지낼 수 있음. 매니저가 까다롭지 않음. 인테리어나 외관이 고급스럽지는 않음. 현재도 한국 분들 거주. 빈 집이 거의 없으므로 일찍 매니저에게 연락하여 대기 리스트에 등록해야 함.
2. River Terrace: 현지 목사님 내외가 추천하신 아파트. 월세가 헤론 보다는 비싸며, 여러 스타일의 유닛이 있음. 현재 거주하는 한국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음.
3. Boulders: 강변 옆에 있는 것이 장점. 상대적으로 더 고급스럽고 시원한 장점. 단 겨울에 춥고 (공기가 차갑다고 함.. 난로 없이는 버티기 힘듦), 월세가 비쌈. 현재도 한국 분들 거주.
4. Forest Hill: 고급스럽고 좋으나 월세가 비쌈. 현재 거주하는 한국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음
5. Valley river court: 헤론보다 집 크기, 인테리어 등등이 떨어지는 편이나 월세가 더 저렴함.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여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임.
6. Country club place: 조용하고 깔끔한 편임. 월세도 저렴. 하지만 노인 분들이 많이 거주하셔서 조용히 살아야 함.
7. Creekside: 추천하는 분이 없었음. 피해야 함.

개인적으로는 1-2번 추천드립니다. 추위를 타지 않고 월세가 괜찮다면 3번도 좋습니다. 물론 4번도 좋고요. 5-6번은 월세를 아끼려 한다면 고려해 볼 만 합니다. 저는 5-6번에서 거주했는데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타운 하우스를 선호했는데, 5-6번은 타운 하우스가 없습니다.

이들 아파트들이 모두 willagilliespie초등학교 학군인데, 아마 한국 아이들이 가장 많은 초등학교일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럽게 애들 보냈습니다.

아파트는 forrent.com 사이트를 통해 알아보면 됩니다. Forrent.com 사이트에서 아파트를 알아보면 각 아파트의 매니저에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저한테 따로 메일을 보내오더군요. 그 후에 좀더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거나 계약을 진행하는 작업은 아파트 매니저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헤론의 경우에도 홈페이지에서 application을 받아서 매니저에게 제출하시면 대기 리스트에 등록될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계약을 진행하려면 어디든지 application을 작성해야 하고, 매니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파트 쪽에서 검토를 하고 승인이 되면 렌트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집을 구하기가 영 껄끄러우시면, 현지에 오셔서 일주일 정도 지내면서 집을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여기 유진중앙교회 게스트하우스에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참고로 유진중앙교회 목사님, 연락처 알려 드립니다. 도착하실 때쯤 연락 주시면 공항 픽업 등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은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는 거는 언제든 환영하십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서 지낸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연락하시면 아마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병두 목사님: 541-510-5794, byungjun48@hotmail.com

1. 자동차 구입

한국 생산 차는 한국에 가져갈 때 통관세금이 없습니다. 한국 생산 차는 차대 번호로 확인하면 됩니다 (K로 시작). 그 외 미국 이나 기타 국가 생산 차는 모두 통관 세금을 뭅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세청 등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은데 25-35%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차를 한국에 가져가실 생각이라면 처음부터 한국차를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아무 차나 사셔도 될 듯 합니다. Cars.com 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차의 대략적인 인터넷 시세를 파악하시고, 딜러샵에 가셔서 딜 하시면 되는데, 인터넷 시세보다 좀더 낮게 구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고차의 경우에는 kbb.com에서 차의 대략적인 가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살림살이 장만

살림살이는 인계받을 분이 있으면 가장 좋은데, 만약 시간을 맞추지 못해 찾지 못하셨다면, 유진중앙교회 연락하셔서,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살림살이 등을 구입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보통 7-8월에 창고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가지고 야드 세일을 하는데 (바자회), 쓸만한 물건들, 옷들, 한국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기가 맞다면 바자회를 활용해도 되고, 맞지 않으면 교회에 연락해서 따로 구입하거나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 바자회랑 시기가 안 맞아서 많은 물건들을 중고로, 또 새 걸로 샀는데, 교회에서 구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은행계좌

은행계좌는 주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오픈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도 바로 신청 가능 (BOA.. 다른 은행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도착하는 대로 은행 계좌를 빨리 개설하는 게 여러 모로 편리합니다. (아파트 계약, 자동차 계약 등을 할 때 현금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개인수표, cashier’s check, money order 등을 이용합니다) 보통 잔액 1500불 이하면 계좌유지비용을 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계좌를 10000불 가량 이상 유지하는 조건으로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계좌 개설하는 데는 약 20-30분 정도 걸렸습니다.

1. 핸드폰, 국제전화, 인터넷 개통

핸드폰은 한국 핸드폰에 유심을 바꿔 껴서 사용 가능합니다. (T mobile에서는 됐는데, verizon은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새로 구입하셔도 되고요.. 아무래도 핸드폰 개통을 빨리 하면 도움이 됩니다. (40USD/month => 통화 무제한, 데이터 2GB. 요금제 나쁘지 않습니다.)

국제 전화는 카톡으로 충분하고 필요에 따라 한 달에 15불을 더 내면 국제전화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 가능합니다. 통화 가능한 국가는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070이 없다면 굳이 따로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인터넷도 집이 결정되는 대로 개통하시되, 모뎀을 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임대와 가격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저는 이베이에서 중고로 저렴하게 구입해서 썼습니다. 운이 좋으면 교회 바자회에서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1. 초등학교 입학 및 튜터

초등학교 입학은 신청 후 며칠 걸리기 때문에 학교를 빨리 보내려면 가급적 일찍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 영어 튜터를 받았는데 선생님이 친절해서 저는 좋았습니다. 혹시 나중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시다면 전해 드리겠습니다. (ilhoon.shin@snut.ac.kr로 연락)

1. 자동차 보험

차를 구입하면 바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딜러샵에서 추천해 줄 수도 있고, 저는 liberty mutual을 이용했는데 만족했습니다. 집 렌트 보험과 함께 들었는데, 일부 아파트들은 렌트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보험과 함께 가입하면 더 할인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만일을 대비해서 AAA에 가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낮은 요금으로 하면 굉장히 저렴하고 토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핸드폰이 안 터지는 곳이 많고 보험 서비스도 느리다고 들어서.. AAA에 가입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저는 배터리 방전 때문에 몇 번 서비스를 받았네요.

1. 자동차 면허, 운전, 주차 등

운전면허는 필기만 합격하면 됩니다. 한국면허증을 제출하고 (돌려주지 않음) 오레곤 면허증을 줍니다. 필기는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기출 문제가 있으니 공부하고 시험봐야 합니다. DMV에서 신청하고 시험도 봅니다. 스프링필드 DMV가 좀 더 한산한 것 같습니다. 35문제 중에 28문제 이상 합격해야 하고, 시험은 한국어로 볼 수도 있고 시간 무제한이니 천천히 생각하면 됩니다.

여행 다니실 때, 특히 밤 운전하게 되면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동일한 도로라도 마을 안으로 들어오면 제한 속도가 낮아지는데, 과속하게 되면 경찰에 걸려 꽤 큰 범칙금을 내게 됩니다. 마을 입구 쪽에 경찰차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차가 경광등을 켜면 바로 길가로 주차하고 경찰을 기다리면 됩니다. 범칙금을 내야 할 때는 사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법원에 출두하면 범칙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많은 경우에 딜이 가능하더군요. 도서관에 내야 했던 벌칙금 (자료 손상, 반납 지연 등) 등도 모두 네고가 가능했습니다.

유진에서, 또 오레곤 대학에서 주차하실 때 street parking의 경우에는 도로 옆에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는 주차하면 안 됩니다. 또 동전 주차기가 있으면 먼저 계산을 하고 주차해야 합니다. 2시간 무료 주차 구역을 많이 활용하면 좋은데, 2시간이 지나면 차를 옮기던지 해야 합니다. 지키지 않은 경우 범칙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네비게이션

네비게이션은 핸드폰에 설치하는 구글맵이면 유진 근방에서는 무리가 없습니다. 장거리 여행을 대비해서는 sygic이라는 앱을 구입해도 좋습니다. 저는 전세계 사용 버전을 32불에 구입해서, 캐나다, 열로스톤, 캐년들 여행 등에 활용했습니다. 물론 여행 시에도 주 네비는 구글맵이었습니다. 인터넷이 된다면 가장 정확합니다. 인터넷이 되는 환경에서 먼저 목적지를 검색해놓고 운전하면인터넷이 안 될 때도 계속 안내가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에서 목적지를 바꿔서 검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백업용으로 sygic이 필요합니다. Sygic은 필요한 주소를 미리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오프라인 네비 앱입니다. 저는 가민 등 다른 전용 네비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1. EWEB

아파트를 계약하면, 전기 등을 사용하기 위해 EWEB에 가입해야 합니다. EWEB은 coburg road 근처에 있는데 처음 가실 때는 진입로를 놓칠 수가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가입 시에 일정 금액의 디파짓을 내야 하고, 대략 일년 정도 되었을 때 디파짓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1. 마트

쌀은 코스트코에서 honmai 쌀로 구입하면 우리나라 쌀이랑 똑같습니다. 한국 마트로 sunrise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코스트코 멤버쉽은 한국 멤버쉽도 사용 가능한데, 일부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Exclusive로 가입하면 사용 금액 일부를 환불 받는데 코스트코에서 워낙 쇼핑을 많이 하다 보니, 연회비가 빠지는 것 같더군요. 저는 안 했지만, 가입한 다른 교수님은 만족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트의 종류가 다양해서 특색을 대략 알려 드리자면,, 코스트코 (대량 판매, 고기류, 과일류, 쌀, 계란, 자동차 기름 저렴), 월마트 (공산품 저렴), goodwill (중고 물품, 옷 저렴), 윙코 (야채, 과일 저렴), 세이프웨이 (소량의 고기 저렴, 세이프웨이 카드를 만들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마켓오브초이스 (좀더 고급이고 좀더 비쌈).

아파트를 계약하면, 전기 등을 사용하기 위해 EWEB에 가입해야 합니다. EWEB은 coburg road 근처에 있는데 처음 가실 때는 진입로를 놓칠 수가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가입 시에 일정 금액의 디파짓을 내야 하고, 대략 일년 정도 되었을 때 디파짓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1. 취미 생활

테니스를 좋아하신다면 ymca 추천합니다. 테니스 잘 치는 분들이 많고,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서 파트너를 찾을 필요 없이, 모르는 사람들과 편하게 어울려 칠 수 있습니다.

골프는 헤론 클럽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차로 20분?) river ridge를 주로 이용하시더군요..

방문학자로 오신 경우에는 오레곤 대학 안의 recreation center 회원권을 끊으면 모든 체육 시설 (수영장, 테니스, 헬스, 라켓볼, 농구장 등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권도 저렴한 편이고 (100불/term), 시설이 깨끗하고 좋습니다.

봄, 여름에는 농장을 방문해서 과일 등을 따고 맛 보는 것도 좋은데, 농장 이름은 교회 분들에게 물어 보시면 됩니다.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레곤 해안으로 게 잡이를 많이 가시던데 라이센스 구입하면 됩니다. 역시 교회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로 여행 가시는 경우에는 오레곤 대학 international office에서 DS2019에 사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리 담당자와 연락해서 약속을 잡으면 됩니다.

1. 치과

치과는 방문학자 보험으로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 nurse에게 연락해서 저렴한 치과를 찾고 있다고 얘기하면 연결해 줍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간단한 치료는 무료로 받을 수 있었는데, 예약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서 시급한 치료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아이들 summer camp

여름이 되면 여러 기관에서 아이들을 위한 camp를 진행합니다. 일부는 spring break 동안에도 캠프를 엽니다. 제가 직접, 간접으로 경험했던 캠프들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Hallow camp(?) by first Baptist church: 교회 근처의 별도 캠프 시설 운영. 아이들이 무난하게 만족함.. 다만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모이고, 줄 서고 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불평을 했음.

U of Oregon Camp: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데 도우미 선생님들도 친절하고 아이들도 아주 좋아했다고 함. 선생님들과 친해지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 영어가 늘었다고 함. 캠프 기간이 길고 그만큼 비용 부담은 있음.

교회에서 하는 캠프들: 지역의 교회들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저는 미국 교회의 캠프 2군데를 참여했는데 만족했습니다.

YMCA 캠프: 경험하지 못함.

1. 아이들 방과 후 활동
* USTC collage: 한국 관장님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태권도를 좋아하면 추천. 한국 도장과 다르게 좀더 본연의 태권도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 Sheldon: 어린이 수영 교실에 참여한 아이들이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 YMCA: 농구 교실에 참여했는데 아이가 좋아했습니다.
* Kids sports(?)
* Willamane (Bob Kiefer(?)): 월, 목요일 4-6시까지 아이들을 위한 rock climbing
1. 기타

여행자 수표를 가지고 왔다면 우체국에서 교환 가능합니다.

1. 참고 사이트

분야 별로 유진 정착 관련된 정보들이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 입니다. 함께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http://www.eugenechurch.com/index.html?SectionID=6&ClassID=SuperVisor&LinkID=7>